보도 자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북지부		
	주소 : 우)55030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16, 3층 전화 : 063-247-1503		
	메일 : jbsadd420@gmail.com 홈페이지 : https://jb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5년 10월 1일
담당	양은주 063-247-1503	페이지	3p.
제목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 시외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촉구 기자회견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

시외고속버스 장애인이동권 보장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5년 10월 2일(목) 오전10시 30분 -장소: 전주고속버스터미널(주차장 옆)
-주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북지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북장차연')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북지부(이하 '이동권연대전북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전북의 장애인단체 및 회원들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3. 우리는 최근 광주지법에서 금호고속에 휠체어 이동권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에도 상소가 진행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운수회사가 여전히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시외고속 이동권 현실을 알려내고자 합니다.

4. 전장연을 비롯한 한국 장애인운동은 200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쟁취를 위해 끊임없이 행동했습니다. 그 투쟁의 결과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시내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배제되는 상황에 맞서 전장연과 전북장차연은 여전히 투쟁하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외고속버스는 20년이 넘게 장애인운동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탑승 가능한 시외고속버스가 단 1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2019년 4개 노선에서 리프트 탑승가능 시외고속버스를 시범 운행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운행률 저조를 핑계로 이마저도 모두 사라진 상황입니다.

6. 광주장차연에서는 시외고속이동권 보장을 외면한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금호고속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25년 2월, 대형운수회사인 금호고속이 시외버스에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일부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을 얻어 내지 못했지만, 시외고속버스의 주요 운영업체인 금호고속이 더 이상 수익 감소를 운운하며 장애인 탑승 가능 시외버스를 외면하지 못하게 한 점에 있어 장애인 이동권에 있어 중요한 판결입니다.

7. 우리는 시외고속이동권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행동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주요 운수회사를 상대로 한 이동권 보장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도 명절에 시외고속버스 타고 고향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취재로 “명절에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 갈 수 있는 세상”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대표 여는발언

-투쟁발언 1

-투쟁발언 2

-고속버스 탑승 퍼포먼스

-시민선전전(시민호소문)

<시민 호소문>

2025년 10월 추석에도 외친다! 장애인도 (시외)고속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
21세기 명절에도 이동수단이 없어 고향에 못가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 맞습니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시민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주세요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 부푼 마음을 안고 지역 곳곳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이해서 지역 곳곳에서 “장애인도 시외고속버스 타고 고향가고 싶은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는 수십년 째 추석, 설 연휴마다 시외고속터미널에 나와 함께 버스 타고 싶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 속담이 무색하게 25년 동안 장애인은 시외고속버스를 탑승할수 없습니다.

그 이십오년 동안 정권이 바뀌고 지방자치단체 책임자가 바뀌었음에도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누구도 장애인 시외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에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시외고속버스 운수회사 역시 장애인 시외고속버스 이동권을 외면했습니다.
수익성이 없다고, 장애인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온갖 기만적인 이유를 들며 장애인 탑승 시외고속버스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프리미엄 버스 같은 비장애인을 위한 버스는 순식간에 도입하면서 장애인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수십년을 차별 버스로만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2019년 전국 4개 노선에 장애인 탑승 시외고속버스가 시범 운행된 바 있습니다. 전주-광주노선에도 휠체어탑승 버스를 시범 도입했다가 코로나 시기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을 중단 했습니다.
왜 장애인들은 돈을 내도 정당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까? 이런 사회가 민주주의사회 맞습니까! 누구나 질병, 환경오염, 노화 등으로 장애를 가질수 있습니다. 몸의 문제로 차별하는 사회 시민여러분이 함께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투쟁은 누구나 늙고 약해지는 모든 시민여러분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투쟁일 것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시민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